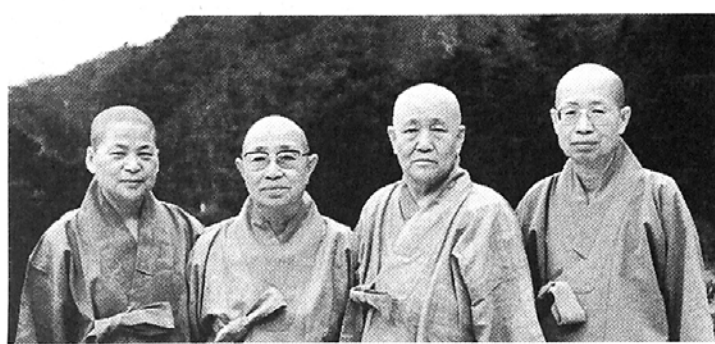


◇ 1991.10.14~19. 제12회 범어사 단일계단 수계신법에서 존중이시리로 법회를 증명하고 있는 도원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

제12회 범어사 단일계단 수계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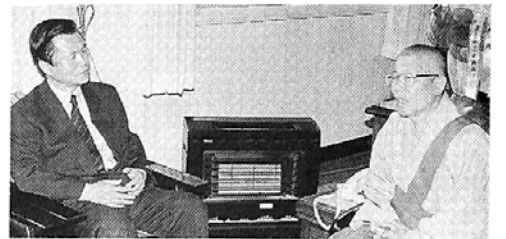


◇ 진관사에서 불필(해인사)·인홍·해춘(전국비구니회 교문)·진관(진관사 주지)스님이 함께 했다(사진 왼쪽부터).



동포 아픔 나누는 '옥수수죽' 만찬

송원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환추기경, 강원통목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12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에 참석, 김치와 단무지 반찬에 옥수수죽을 먹었다. 이날 만찬은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나눠 갖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행사다.



인곡스님 박철연 자민련불자회장 환담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은 16일 오후 자민련불자회장 박철연의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곡스님은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각성과 함께 정치인들이 조계종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연의원은 "어려운 시국이니만큼 스님들이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자민련불자회는 불교발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후원대법회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불사 후원대법회가 14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원주스님을 비롯해 석주(중앙승가대 명예총장) 복원(동국대 이사장) 설정(조계종 총회위원장) 성태(포교위원장)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승석구(동국대 총장) 승재건(조계종중앙신도회장) 서문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함중환(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이인재(경기도지사) 씨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판식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빌딩 별관 2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 조계종총무원장, 성태 조계종포교위원장, 승석구 동국대총장, 인동일 재가불자연합 상임공동대표, 명을식 한미유선원신도회장, 명호근 대불련총동맹이사장, 이상번 대불침중양회장, 이상현 한국공안행정학회장, 김경선 청년여성문화위원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들고 놓음 흔적 없어”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진제당 도원 대종사가 13일 저녁예불을 끝내고 요사채로 돌아온 직후 열반에 들었다. 스님은 이미 예불 도중 인후내부에서 출혈이 있었으나 내색을 않고 예불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상좌등 대종들은 더욱 오열했다. 특히 이날 오후 10시경 도원스님은 조석예불 주재 대종들과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손수 같이 만들었다. 그후 예불 전까지 요사채 방문을 일일이 열고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 그러나 도원스님은 입적을 예지한 듯 3일전 입중계를 남겼다고 한다. 삼보사 주지로 새벽예불과 저녁예불을 손수 올리는 스님은 남에게 일을 미루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30여년간 상좌인 근일스님(당시 영천 묘각사주지)이 초를 얻으려 방문했을 때 큰스님은

타고 남은 동당초 1박스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일스님이 박스를 땅에 팽개치고 돌아갈 때도, 또 며칠 후 참회하러 왔을 때도 큰스님은 묵묵히 웃으시다가 말했습니다. 손상좌 호성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스님은 뒷산에 있는 밭도 직접 매는 등 솔선수범하는 수행자세로 불자들의 표상이 되어 왔다. 삼보사 신도회장 이보광화보살(71)은 "김장배추를 사서 리어카를 직접 끌고 가시면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어버이를 잃은 심정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만공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문하에 문인스님(전 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 법조스님(고운사주지) 근일스님(부석사주지) 보광스님(해인사주지) 법해스님(동국대교수) 동욱스님 방산스님 선룡스님 등 40여명의 상좌를 두었다.

대구=이윤호 기자

“90생 벗으니 둥근달”

비구니회 총재 인홍스님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성 원려당 인홍스님이 세수90의 생애를 마감하고 열반했다. 비구니 전계화상을 역임한 스님은 56세 법랍의 생애를 계에 의지해 정정하게 수행했다. 스님은 세수90의 노년에도 새벽3시 아침예불로 하루를 열고도 반드시 대중들과 발우공양을 했다. "병중에도 기평을 지켰다"고 회고하는 시자스님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은 물론 제자들에게도 계율에 의지해 행동한 자세는 '철저한 수행,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다. "후일에 반찬찌꺼기라도 버려진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57년 다 허물어져 가는 석남사 주지로 오셔서 법당을 증축할 때 손수 기와장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울력을 하셨

으니까요." 만상과 진관스님(진관사 주지)은 이렇게 회고했다. 스님은 55년 7월 정화직주 대구 동화사에 첫 비구니총림 설립을 원력으로 동화사 총무를 맡았다. 그러나 끝내 여의치 못해 안타까워 했다. 이후 스님은 석남사 불사에 매진, 선림회(禪林會)를 조직해 8천9백여명의 사당을 매입한 다. 이는 당시 종정 효봉스님으로부터 공로상 표창장을 받았다. 스님은 56년부터 비구니 직능 중앙총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80년에는 비구니 전계화상을 맡았다. 현재 인홍스님의 상좌로는 진관 법회(석남사 선원장) 현묵(석남사 유나) 범용 백출(옥천사주지) 불필(해인사 금강굴)스님 등 20여명의 제자와 해정스님(석남사주지) 등 직계상좌가 2백여명에 이른다.

부산=천미희 기자

행장

- 1921년 경남 함양 출생
- 40년 일본 대성종 졸업
- 41년 해인사 경허스님 계사로 수계
- 78년부터 5·7·8대 중앙총회의원 역임
- 80~86년 호계위원장 역임
- 현재 원로의원 삼보사 주지, 고운사 조실
- 저서 <전수비구경계법> <보살계본법망경>

입중계

생야몽중사(生也夢中事)
사야몽중사(死也夢中事)
집방무흔적(寂放無痕迹)
조계삼보화(曹溪三寶華) 喝
(삼은 글 속의 일이요/ 죽음도 글 속의 일이라/ 잡고 놓음에 흔적 없으니/ 조계는 삼보로 빛나도다)

행장

- 1908년 경북 영일 생
- 41년 월정사에서 정자(淨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5년 선학원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 수지
- 51~52년 성주사선원장 역임 · 54년 흥제사주지 역임
- 56~66년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 57~76년 석남사주지 역임 · 80년 비구니전계화상역임
- 87년~현재 전국비구니회 총재

입중계

삼세 불조 가신 길을
나도 가야지. 90생애 사
바의 길 공한 아님 없
도다. 일업편주처럼 두
등실 떠나는 곳 공중
에 둥근달 밝음 뿐이네.

정토회 제8차 신앙대회



◇ 12.13일 문경 정토수련회에서 열린 제8차 정토신앙대회.

소음으로 번잡한 도심과는 달리 정적이 감도는 백화산 자락의 경복 문경 정토수련원. 새벽 2시가 지난 시각이지만 전국에서 모인 5백여 불자들의 관음정진 소리와 기도는 불사의 열기를 느끼게 한다. 12.13일 '이땅에 정토를!'이란 주제로 열린 제8차 정토 신앙대회. 이번 대회는 매일 오전 5시 정토행자들이 각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만일결사 수행정진을 함께 모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불교의 종도가 기도 위주의 기록신앙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지

고 험담한 것이 얼마나 큰 업을 짓게 되는지를 설명한 각해보살의 '인과법' 신앙상담에는 화회의 눈빛들이 역력했다. 새벽 3시가 지나면서 허벅지를 꼬집어 자신을 추스리며 정진에

백화산 달근 5백여 불자 '구도열'

만 정토회(회장 법륜스님)는 자력수행의 강조와 북한동포를 위한 기도 등 대사회적인 보살행을 중시한 점이 특징인 모임이다. 참가자들은 수행 법요집을 하나씩 들고 좌정한채 서암스님(前 조계종

발견하는 자기 부처를 찾아 참다운 불을 창출해 내는 것이 이것이 불교입니다"는 서암스님의 법문에 불자들은 더욱더 정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모습이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남을 미워하

몰두하는 불자들이 눈에 띈다. 새벽 기운이 스러질 무렵, 법륜스님은 "밤새워 정진한 여력을 돌아 독립운동하던 마음으로 북한동포 돕기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서암스님 책을 읽고 처음 참가했다는 임정복씨(45·강남구 역삼동)는 "책은 머리로는 배우지만 직접 참여해 보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환희심을 표현했다.

수행담 발표·철야정진 등 신심 다져 "우주 주인은 바로 나" 법열에 환희심

중정)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법문, 정진, 각해보살의 신앙상담, 수행담발표 등으로 이어지는 철야정진에 사투 진지하다. "우주만물을 창출해 내는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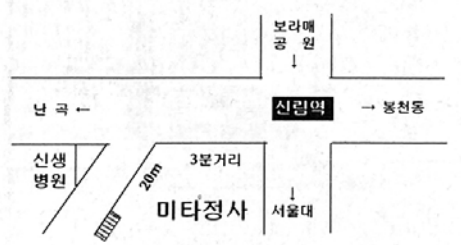
고 험담한 것이 얼마나 큰 업을 짓게 되는지를 설명한 각해보살의 '인과법' 신앙상담에는 화회의 눈빛들이 역력했다. 새벽 3시가 지나면서 허벅지를 꼬집어 자신을 추스리며 정진에

문경=김주일 기자

새시대 · 새불교 · 새진리
미(彌)타(陀)정(靜)사(舍)
매일설법 · 철야정진 · 용맹정진

정진일과시간표 (精進日課時間表)

- 아침예배 : (찬불계), 설법, 정진 (04:00~06:00)
- 오전정진 : 48대원, 정진 (10:00~12:00)
- 오후정진 : 아미타경, 정진 (14:00~16:00)
- 저녁예배 : 중서계 극락세계발원문, 정진 (17:00~18:00)
- 저녁정진 : (동방계), 설법, 정진 (20:00~22:00)
- 철야정진 : 찬불송, 발원문, 정진 (24:00~0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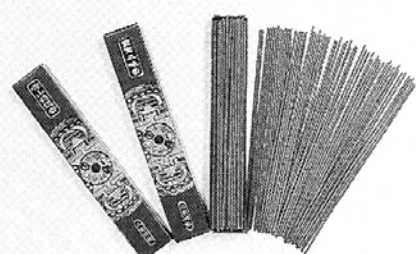
연사: 연무아 (蓮師) (蓮無阿)
☎ 862-5261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 등
- 연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必修 證明書)
- 인원 : 10명 선착순
- 출발일 : 1997년 5월 22일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화 : (02)511/2026-8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라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 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를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 주신 점포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저희는 중간 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지리산 참슬 (松葉汁)



예로부터 소나무는 千年을 산다하여 松壽千年이라 했으며 神仙食으로 스님들께서 많이 드셨던 仙食이며, 조계종 전 종정 설철스님께서도 생전에 산수가 수려한 곳의 솔잎을 드셨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에 솔잎이 각종 순환기 계통을 물론 질병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솔잎즙은 송엽(70%)을 영지, 대추, 감초, 검정콩등과 배합 농축한 자연식품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松葉汁은 : 각종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 은주로 머리 무겁고 눈이 침침하신 분, 손발이 저리고 땀이 뻑뻑한 경험하신 분, 천식 및 잇몸질환으로 인한 구취로 고생하시는 분,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며 고혈압,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머리를 맑게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습니다. 지리산 영농조합법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정적과 지존심을 갖고 지리산자락 하동군 청정지역 황토 땅에서 햇를 듬뿍 먹고 자연 참슬즙을 소개 하오니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1日 2-3食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쫄쫄 코리아헬스 서울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3 (경순BD401호) 공상경합장 (02)247-4667/8 FAX (02)213-3984 B.B. 015-456-8930